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분석*

이 재 림(영남대 교수) · 차 동 혁(서울대 박사수료)

김 지 애(서울대 박사수료) · 이 향 희(서울대 석사수료)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통합하는 것이다. 메타분석이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통합할 목적으로 개별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병합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메타분석을 위하여 201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모든 학술지 연구 및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 (1) 구조화된 결혼준비교육(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총 13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제외하였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3편의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를 (1)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2) 관계만족도, 적응 및 친밀감, (3)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였고 이를 통합하는 전체 효과크기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점수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인 Hedges의 d 값을 계산한 후,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통합하는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평균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참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상되었고 성역할 태도가 양성평등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에 대한 효과크기는 큰 편이었으며($d = .75$, 95% CI : .44 ~ 1.06, $k = 8$),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는 작았다($d = .19$, 95% CI : .03 ~ .36, $k = 6$). 관계만족도, 적응 및 친밀감에서는 프로그램 참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2) 관계만족도, 적응 및 친밀감, (3) 성역할 태도에 대한 효과크기를 통합한 결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참가 이전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효과크기는 작았다($d = .29$, 95% CI : .17 ~ .41, $k = 13$). 총 13편의 연구 중 개인이 아닌 커플단위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8편에 대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참가하기 전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 대상 연구의 전체적인 효과크기는 큰 편이었다($d = .71$, 95% CI : .41 ~ 1.02, $k = 8$). 즉 13편 전체의 효과크기($d = .29$)와 비교할 때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과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본 메타분석의 결과는 결혼준비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에 대한 효과크기는 크지만 성역할 태도에 대한 효과크기는 작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이 포스터는 여성가족부(2011)에서 발행한 연구용역보고서 『가족정책기초연구』(연구보고 2011-56, 연구책임자 옥선화, 공동연구자 장경섭 · 최연실 · 성미애 · 진미정 · 이재림 · 강은영)의 2장 5절을 요약한 것입니다.